原子力安全性確保의 지름길

許 楠

〈科學技術處 放射線安全課長〉

제가 原子力工學을 專攻하고 이 社會에 入門한지가 올해로 꼭 20年이 되는 해로서 그 感懷가 깊습니다.

當時 原子力工學徒가 專攻分野로 進出한다면 原子力院; 原子力 研究所가 그 全部로서 收容能力은 極히 限定되어 있어 外國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副專攻으로 電氣나 化工을 擇하여 專攻以外의 分野로 뿔뿔히 흩어지는 悲運을 맞았읍니다.

그 當時 原子力研究所에서는 TRIGA MARK-Ⅱ, Ⅲ 研究用 原子爐를 運用하여 研究가 活潑했으며, 最近에는 韓國에너지研究所內에 原子力安全센터와 韓國核燃料(株)가 設立되었고 韓國電力公社가 商業用 原子力發電所를 9基나 稼動 또는 建設하고 있을 만큼 本格的인 原子力時代를 맞고 있읍니다. A/E會社인 韓國電力技術(株)이 생겨 우리 손으로 原子力發電所를 設計할 수 있게 되었고 韓國重工業(株), (株)大宇ITT 등 原子力機資材 專門메이커와 補修專担會社인 韓國電力補修(株)의 設立으로 發電所 利用率 및 稼動率 向上에 한몫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大學의 原子力工學科는 漢陽大學校를 비롯하여 서울大學校, 慶熙大學校, 韓國科學技術院 및 朝鮮大學校 等에서 젊은 原子力工學徒를 輩出하고 있으며, 學會(KNS, KAIF, KSNT, K-ARP)도 많이 誕生하여 太平洋岸國 原子力會議와 같은 國際行事를 우리나라에서 開催하게 될 만큼 成長, 發展했읍니다. 이 처럼 原子力家族도 많이 늘고 專門家도 많이 輩出되어 原子力家族의 一員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懷古해 보면 古里1號機를 着手할때에 國內專門家도 많치않아 科學技術處(當時 原子力廳)와 韓電, 大學 等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當時로서는 最善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規模도 커졌고 專門家도 많아서 그런지 오늘날의 實情은 옛날과는 달리 政策이나 制度의 運營 過程에서 合理的인 對話와 協議 通路는 좁아지고 一方通行을 恣行하는 경우를 봅니다.

特히, 一部에서 現 原子力安全規制制度가 마치 不合理하고 工期遲延의 要因으로 錯覺하는 듯 해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現行 安全規制度가 完璧하다고 主張하는 것도 아닙니다. 改善할 만한 事項이 있으면 果敢하게 改善해 나가자는데는 本人으로서도 大贊成이지만, 意思表示와 協議節次는 納得할 만한 過程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問題을 認識하는 視角도 合理的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安全規制가 工期遲延을 超來하여 經濟性을 沮害하는 主要因이 될 수 없으며, 長期的으로 보아 安全에 對한 投資가 오히려 經濟的이며 무엇보다도 事業者 스스로의 安全管理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努力이 이루어지고 原子力 家族 各者에게 주어진 使命을 다할 때 安全管理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原電開發에 있어서 安全性과 經濟性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어느 一方을 爲하여 다른 面이 犧牲되거나 單純히 便利爲主로 考慮하여서도 안되는 要件들 입니다.

特히, 強調하고 싶은 것은 根本的으로 經濟性의 確保는 原電建設 및 運轉의 技術向上을 通하여 積極的으로 成就하여야 하는것으로서 安全性의 比重을 떨어뜨려 그 相殺效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着想은 크게 삼가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美國, 日本 등에서 活撥히 推進되고 있는 原電開發의 經濟性에 對한 檢討도 그 基本이 安全性을 評價低下하는 消極的 對策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原電의 經濟性을 構成하는 要因 즉 標準化·國産化의 擴大, 建設期間의 短縮, QA/QC의 合理化 等을 通한 建設費 低減對策, 稼動率 向上對策, 發電所壽命의 延長對策 等에 主眼點을 두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安全이란 主觀的 判斷으로 우리 人間이 運營하는 것입니다. 그 判斷은 共通의 基準·尺度가 必要하며, 그 「자」가 되는 條件은 역시 相互會議와 技術的 論證이 可能해야만 합니다.

그 「자」가 바로 法令과 技術基準인 것입니다. 技術基準은 우리의 것도 있고, 不足한 것은 外國의 것을 準用하기도 합니다.

安全規制는 被規制者의 便宜에 依해서 變更될 수 없으며, 根本的으로 國民大衆의 健康과 環境汚染防止를 爲하여 事務를 關聯法規에 따라 가장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하는 것은 公務員에게 주어진 至高의 責任과 義務인 것입니다.

原子力安全性確保는 定해진 安全規制要件을 充分히 履行함은 물론이려니와 未備點은 먼저 充分한 客觀的 妥當性의 論證을 거쳐서 一方의 主張이 아니라, 當事者 相互間의 充分한 協議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安全規制가 工期遲延을 超來하여 經濟性을 沮害하는 主要因이 될 수 없으며, 長期的으로 보아 安全에 對한 投資가 오히려 經濟的이며 무엇보다도 事業者 스스로의 安全管理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努力이 이루어지고 原子力家族 各者에게 주어진 使命을 다할때 安全管理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原子力安全性確保의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提言하는 바 입니다.